

학교회계 운용·투명성 강화한다

전북교육청, 내년도 학교회계 예산설명회 개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 지침 안내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단위학교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9일 오후 2시부터 도교육청 유튜브(www.youtube.com/c/jedumov) 채널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설명회는 도내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장 및 행정실장 등 1,6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도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2022년도 지방교육재정 여건과 단위학교 재정 건전성 운용 방향을 제시하고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안내했다.

한편, 내년도 지방교육재정 여건은 코로나19 방역 지원 공공투자 확대 등을 통해 세수 회복을 기대하고 있으나 변이 바이러스 등의 계속된 유행으로 경기변동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2022학년도 학교회계 예산편성

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심리·정서 등의 교육적 회복과 감염병 예방 및 방역 강화, 학교지치 구현과 미래교육 도약을 위한 교육과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기본적 교육활동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줄 것과 학습자 중심의 재정의용 안착을 위해 학생복지, 창의적 체험활동, 학생자치 활동 등의 예산을 학교기본운영비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안내했다.

이와 함께 최근 발생한 회계사고와 관련해 학교장의 회계업무 재정운용의 책무성과 청렴성 의지도 강조했다.

류정섭 부교육감은 "대부분의 학교 현장에서 투명하게 학교회계를 운용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몰다 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자는 마음으로 투명한 학교회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면서 "전북교육가족 모두가 청렴한 의지를 갖고 투명하게 회계를 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와 승실대학교(총장 장범식)가 업무협약을 체결,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 분야에 대한 교류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우석대-승실대, 협력체제 구축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 분야 교류협력 추진

우석대학교(총장 남천현)와 승실대학교(총장 장범식)가 업무협약을 체결, 교육·연구·학술·산학협력 분야에 대한 교류 활동을 추진키로 했다.

남천현 총장은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학 간 협력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력이 양 대학의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임은 물론, 대학 간 공동발전방안 모색과 실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범식 총장은 "공유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두 대학이 협력해 나아간다면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큰 배를 띄울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답했다.

/정은성 기자

협력 ▲시설 및 장비 등 상호 이용 ▲산학협력 정보 공유 등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남천현 총장은 "급변하는 대학교육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대학 간 협력체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이번 협력이 양 대학의 교육의 질을 한 단계 높임은 물론, 대학 간 공동발전방안 모색과 실천의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장범식 총장은 "공유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두 대학이 협력해 나아간다면 거센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큰 배를 띄울 수 있을 것이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양 대학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라고 답했다.

/정은성 기자

“모든 학생을 책임지는 전북교육 될 수 있게”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 '전북형 기초학력지원체제' 위한 3가지 정책 제안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 학생 맞춤형 다중지원팀 · 기초학력 마을교사 도입해야”



황호진 전 전북부교육감은 9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아이를 책임지는 전북형 기초학력지원체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북형 기초학력지원체제”는 기본권이자 인권문제라며, 이를 위한 상시적 지원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황 전 부교육감은 이 자리에서 “모든 아이를 책임지는 전북형 기초학력지원체제”의 3가지 정책을 제안했다.

그 첫번째로는 풀 아웃(pull-out) 방식 ‘기초학력 전담교사제’의 본격 도입이다.

기초학력 전담교사제는 정규 교사 중에 170시간 이상 고강도 연구 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기초학력 전담교사로 선발해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배움이 더딘 초등 저학년 아이 시기부터 오롯이 아이들의 학력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학습이 더딘 아이들에게 교실 밖 별도의 공간에서 1:1 개별화 수업으로 최적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 보통 학력 이상으로 아이

들의 학력을 회복할 수 있다.

전남교육청 사례를 예로 들면서 지난해 전국 최초로 초등 정규교사 40명을 ‘기초학력 전담교사’로 선정 운영해 초등학교 1·2학년 학생 200명을 전담지도하고, 이중 78%인 181명의 학생이 문해력·수해력 기준점수에 도달하는 성과를 거두며 전국적인 우수사례가 되고, 교육분야 정부혁신 우수사례 대상을 수상 한 바 있다.

2022년에는 48명으로 기초학력전담교사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두번째로는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중심으로 ‘학생맞춤형 다중지원팀’을 운영을 제시했다.

기초학력 저하문제는 단순히 학력 저하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학생 생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정서적·심리적인 문제 등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난다.

이에 기초학력 전담교사를 중심으로 담임교사, 상담교사, 보건교사, 교육복지사 등으로 다중지원팀을 구성하고 방과 후 마을교사와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기초학력 저하의 원인을 심층 진단하고 부진 요인을 파악해 개별 학생 맞춤형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지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마을과 함께 기초학력 마을교사를 양성하고 방과 후에는 마을교사가 기초학력을 책임지게 하는 것이다.

마을교육공동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지역 대학생 동아리 등과 연계해 ‘기초학력 마을교사’를 전문양성하고, 이들 마을교사가 학교 밖 개별 학습을 제공해 학교-마

을, 교실-집으로 이어지는 기초학력 원전보장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 전 부교육감은 “전북교육을 돌아보면 전북교육청은 기초학력 향상 정책으로 두리교사제, 맞춤형 학습 지원학교, 기초학력 보조교사제 등을 시행하고 있지만, 전북의 학력저하와 학습격차 문제는 아직도 곳곳에서 지적되고 있다”며, “2012~16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이 중학생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고, 고등학교 생도 다섯~여섯 번째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11년간 전북교육청은 ‘학력은 경쟁’으로, 학습격차는 학생 간 서열화와 쓸 세우기로 왜곡하면서 학력저하의 실태를 애써 외면하고 제대로 보려고 하지 않았고, 여러 언론 보도와 많은 교사가 학습격차 문제를 지적할 때마다 실훈이 없거나 미봉책에 불과한 정책만 남발해 왔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배움에서 나오지 않도록 모든 아이를 책임지는 전북형 기초학력지원체제가 필요하다”며 “‘기초학력 전담교사제’, ‘학생맞춤형 다중지원팀’, ‘기초학력 마을교사’ 도입을 통해 모든 학생을 끝까지 책임지는 전북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서영임 대학원생, 학술대회 ‘장려상’



전북대학교 서영임 대학원생(고고문화인류학과 석사과정)이 최근 열린 2021 한국지역문화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수논문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역미래, 문화공존과 이음으로’라는 주제로 김해 문화의 전당에서 웨비나(Webinar) 방식으로 열린 형태로 동시 개최됐다.

우수논문 장려상을 받은 서영임 대학원생은 ‘전통한옥마을 전통문화관광에서의 진정성 : 한옥 경관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정은성 기자

전북대 최효상 학부생, 젊은 과학자상 수상



전북대학교 최효상 학생(안자시스템공학과 4년)이 최근 열린 방사선 기술이용-산업진흥 연차대회에서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방사선 산업 진흥을 위해 (사)한국방사선진흥협회에서는 매년 이 대회를 열어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분야의 이용 진흥 및 안전 증진에 뛰어난 업적이 있는 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발전 잠재력이 우수한 젊은 과학자를 추천 받아 그 업적을 격려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정은성 기자

전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은 9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중학교 교장과 진로 담당 장학사 등 중등 관리자를 대상으로 진로교육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중등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도교육청의 진로 교육 추진 현황과 방향을 안내하고 ‘허클베리핀 진로탐험대’ 등 진로 교육의 다양한 우

전북교육청, 진로교육 역량 강화 연수 실시

수사례를 발표·공유하는 한편 변화하는 진로 교육의 방향과 미래 전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으로 인해 오전과 오후 2차례로 나눠 진행됐다.

서경숙 장학사의 전북교육청 진로 교육 추진 현황 및 방향 안내에 이어 이라남상여중 안치환 교사의 허클베리핀 진로탐험대 사례 발표, 교육의 불송인수 대표의 ‘채움이 비뚤다’ 교육이 비뚤다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신 진로 교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전북교육청의 진로교육 추진 현황을 공유함으로써 중학교의 진로 진학 지도 능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연수”라면서 “학생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진로 및 고등학교 선택을 도움으로써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https://council.buan.go.kr

군민을 위한 군민이 행복한 열린의회

군민 행복을 실현하기 위해 군민의 곁에서 함께 소통하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개암사

내소사

☑ 2021년 부안군의회 회기 일정

· 제326회 정례회(11. 16. ~ 12. 16.) : 행정사무감사 및 22년도 예산안 심의 등

☑ 부안군의회 클린민원 상담센터 운영

· 접수내용 : 군정에 관한 내용 중 불편사항 또는 건의사항

· 접수문의 : 부안군 의회사무과 의정팀 (☎ 063-580-4092)

부안군의회
BUAN COUNTY COUNCIL